

韓日불교, 매년 ‘반핵·세계평화’ 위한 타종한다

제36차 교류대회서 공동선언 발표 청소년 문화체험교류 적극 실시키로

한일 불교계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8월6일과 8월9일을 맞아 매년 각 사찰에서 핵무기 없는 불국토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의 타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일 청소년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체험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부처님 탄생지 네팔 지진 참사도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스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개최한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제36차 교류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전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범등정사,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등 한국불교 지도자 100여명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스님, 부회장 시바타 테즈겐스님 등 일본 대표단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가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은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대화사를 통해 “금번 대회 주제인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는 불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의 여러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동북아 불교의 중심인 한국과 일본이 함께 모범이 되는 선례를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세계 불교에 기여하고 선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한일 템플스테이 및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정보 교환 △정기적인 교류 지속 추진 △한일 사찰 간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양국 불교 지도자들이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대회 주제로 작년에 이어 청소년에 관한 사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청소년의 국경을 넘은 교류, 교화육성이 급선무”라며 “이 대회를 통해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 우호친선이 더욱더 깊어지고 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일 불교계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열린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핵무기 없는 불국토와 세계평화를 위한 타종을 매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일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또 협의회 부회장 춘광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화와 평등에 있다. 이번 교류대회도 인류 번영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주는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협의회 부회장 홍파스님과 시바타 테즈겐스님도 부처님 전에 한일불교의 발전과 세계평화, 인류화합공생을 발원했다.

평화기원대법회에 이어 ‘한일 청소년 문화교

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주제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일본 대정대학 코야마 텐유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 뒤, 참가 대중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응철 교수는 “불교 청소년의 교류는 한일 양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법고를 활용한 불교문화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실천운동 전개 △SNS

를 활용한 불교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한일 청소년문제 연구소 및 상담소 운영 △불교청소년 봉사단체 교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코야마 텐유 교수도 한일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활용해 33관음성지 순례, 흥법대사와 연교가 있는 시코구 지역 88개 사찰 순례 등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교류 방안으로 제안했다.

용주사=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BTN ‘불복장’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불교TV BTN의 개국 20주년 특집 프로그램 ‘은밀한 의식, 불복장(2부작)’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품을 발표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BTN의 ‘은밀한 의식, 불복장’은 문화재 불상의 보존처리부터 불복장 의식 때 안치할 복장물품의 준비, 불복장 의식, 점안의식까지의 전 과정을 HD영상에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소중한 불교의례인 불복장을 장곡사의 불복장 의식을 통해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했다”면서 “불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EBS의 세계문명사 대기획 ‘전불전담의 신비 미얀마(3부작)’ △우수상은 울산MBC의 특별기획 ‘강신주의 해탈프로젝트(4부작)’와 BBS의 광복 70주년기념 특집 드라마 ‘다시 찾은 태극기’가 선정됐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은 현대불교신문사의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우수상은 범보신문사 최호승 기자의 ‘수행현장 체험기’, 뉴미디어부문 △최우수상은 ‘블로그 어라의 숨고르기’·‘카카오톡 이모티콘’ △우수상은 어플리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선정된 불교TV BTN 프로그램 ‘은밀한 의식, 불복장(2부작)’.

케이션 ‘절로’가 각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불교언론인상에는 강상구 KBS 경영위원, 특별상에는 SBS의 물은 생명이야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과 BBS의 뉴스 기획보도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 불자가 된다(4부작)’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대상에 1000만원 △불교언론인상에 500만원 △방송 부문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신문 부문 최우수상에 500만원, 우수상에 200만원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 500만원, 우수상에 200만원 △특별상에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전달된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아웅산 수지 “민주화운동 이끈 힘 불교서 비롯”

지난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 개표가 후반으로 접어들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종 개표 결과는 18일 발표되지만 현재까지 NLD가 사실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단독 정부 구성도 가능해졌다.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미얀마 수지는 2살 때 영국으로 떠났다가 1988년 귀국한 뒤 민주화 집회를 목도하고 민주 정부 구성을 촉구하며 투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군부에 의해 3차례에 걸쳐 15년 동안 가택 연금에 당했다가 2010년 11월 풀려났다. 1999년 남편이 암으로 숨졌을 때는 출국하면 미얀마로 들어오는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해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정신과 불교의 영향으로 평화적 저항을 주장해 온 아웅산 수지 여사는 201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지는 2013년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서 국내 신문으로는 처음으로 2002년 창간 43주년과 주2회 발간을 맞아 현지 대담을 갖기도 했다. 아웅산 수지는 2002년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부처님의



지난 2013년 본지가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만난 아웅산 수지.

미얀마 총선서 압승 확실히
2002, 2013년 본지와 인터뷰
“불자로서 테러의 해답은 자비”

가르침인 ‘자비’를 특히 강조했다. 9·11 테러로 전세계가 혼돈에 빠져있었던 당시 그는 “나는 불자다. 불자로서 테러에 대한 해답은 자비다. 자비로서 테러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나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알렸다.

아웅산 수지는 2013년 본지 인터뷰에서도 15년 가택연금 등 민주화를 위한 험난한 세월을 이겨낸 힘을 “불교의 아비달마(부파불교 논서)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택연금 당시 “집밖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억압과 감시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수행’이었다”며 “명상에서 오는 기쁨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웅산 수지는 두 차례 걸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평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평화는 국민 개개인의 가슴에서 우리나와야 실현될 수 있다. 평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군부세력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면서, 1962년 이후 5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독재가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세계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송년의 밤

귀의 삼보하옵고, 을미년을 보내며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송년의 밤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동문스님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함께 해 주시고,
모교발전과 한국불교 교육증흥의 중심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차가워진 날씨에 법체여일하시길 바라며,
송년의 밤에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_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4시

• 장 소 _ ‘메이필드호텔’ 볼룸 1층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94 ☎ 02)2660-9000

• 문 의 _ 총동문회사무처 ☎ 031)980-7895

※송년의 밤 행사 후 숙박은 없습니다.
※원만한 기수별 좌석 배정과 공양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꼭 연락 해 주십시오.
※김포공항 국내선 8번Gate 7번 승강장 앞에서 오후3시부터 4시까지 20분 간격으로 호텔셔틀버스 운행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범해 합장